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이 은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은 청소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문제인 동시에 가족, 학교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도시 전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남학생 34.5%, 여학생 47.5%가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 절반정도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2주 동안 자살충동을 경험한 남학생은 23.5%, 여학생은 28.1%였고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본 남학생은 3.3%, 여학생은 7.3%나 되었다(Cho et al., 2001). 이는 청소년 자살이 일부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행동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 증후로써 우울을 보고하고 있는데(Birmaher et al., 1996; Hollis, 1996; Roberts, Roberts, & Chen, 1998; Shaffer et al., 1996),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질환의 표현이라기보다 정체감의 발달과 더불어 존재에 대한 회의로 인해 표출되는 발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Chun, 2001). 따라서 정신보건분야에서 청소년의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속한 사회체계내에서 사회심리적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은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광범위한 주변상황

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순조로운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Sankey & Huon, 1999). 실제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은 여러 유형의 건강위험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 및 심리적 부적응과 관계가 있고(Kim, 1994; Sankey & Huon, 1999), 자살은 가장 심각한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으로서 소외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opper, Osman, Osman, & Hoffman, 1998).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주류와 기관으로부터 소외된다면 그들은 우울감을 느끼며(Kim, 1994; Lee, 2001), 소외감에 대한 반응으로써 자살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할 것이다(Nutbeam, Smith, Moore, & Bauman, 1993).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소외감과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를 가족, 친구집단, 학교의 3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고, 위험요소들과 보호요소들이 이들 각 환경영역과 개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다요인의 산물인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가족 요인과, 학교애착, 교우관계나 학업성적과 같은 학교생활 요인, 그리고 자아통제력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다루거나, 예측변수들과 우울 및 자살간의 중재 기전을 소홀히 하고, 직접적으로 예측변수들이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

주요어 : 청소년,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

1)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투고일: 2007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14일

다(Chun, 2001; Borowsky, Ireland, & Resnick, 2001; King et al., 2001). 특히 성별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요인의 동시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어 비교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 시도와 완성의 발생률이 높다면 그에 대한 원인과 예방책의 파악이 매우 필요하며, 자살과 관련된 예측요인들과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개인에 관하여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시급하다(Kopper et al.,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생태학적 관점을 개념적 틀로 하여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 가족환경, 학교생활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포함한 통합모형의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모형에서 청소년의 소외감이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하며, 아울러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는 청소년의 소외감과 우울,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를 검증함으로써 남녀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 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 남녀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효과를 확인한다.
- 남녀 청소년간에 모형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개념적 틀을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기초로 가족환경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위개념으로, 학교생활은 학교예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를 하위개념으로, 개인적 특성은 자기통제를 하위개념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가족환경, 학교생활, 개인적 특성은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며, 소외감은 우울과 자살생각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가족환경, 학교생활, 개인적 특성은 우울과 자살생각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연구에 참여를 허락하고, 양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의 비율과 계열을 고려하여, K시 소재 고등학교중 인문계 3개, 실업계 3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임의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55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양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87부를 제외한 46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양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를 선정한 이유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배제하고, 대상자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자들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52명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남학생 204명, 여학생 208명으로 총 412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의 협조하에 1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 정도였다.

연구도구

● 소외감

Mau(1992)가 개발한 SAS(Student Alienation Scale)와 Kang, W. S.(2000)의 소외감 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을 소외의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였고, 연구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문항들을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하부 유형별 문항수는 각각 7문항으로 총 28문항이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소외감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우울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NIMH)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역학연구-우울척도(CES-D)를 Noh, Avison과 Kasper(1992)가 한국어로 번역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 4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개발한 YRBSS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을 근거로 Kang, S. J.(2000)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측정도구중에서 자살 생각 및 시도행위 5문항을 선별하여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 부모의 양육태도

Jackson, Henriksen과 Foshee(1998)가 개발한 API(Authoritative parenting index)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API는 부모의 온정, 수용성, 관심, 참견 정도를 측정하는 반응성 9문항과 부모의 감시, 주장적 통제, 감독 정도를 측정하는 요구성 7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견 항목은 역산하게 된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성과 요구성이 높은 권위적인 부모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반응성과 요구성이 각각 Cronbach's $\alpha = .66$ 이었다.

● 학교애착

기존 선행연구(Park, 1998; Yoo, 1994)의 학교에 대한 태도 문항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애착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식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수업 및 기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애착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Park(1998)의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문항중 실제 학교 성적과 성적에 대한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등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 교우관계

Yoo(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검사도구 중 교우관계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와 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긍정

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 자기통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척도를 재구성한 Nam (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조사도구별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고, 적합도를 평가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위한 사전분석으로 다변량 극단치 검증, 단일변량 정규분포의 검증, 다변량 가정 검증, 회귀진단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모형을 구축한 후 LISREL 8.3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전체대상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을 하고, 성별에 따른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들의 측정척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과 개념들간의 내부 관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여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변환을 하지 않고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최대가능법(ML)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 제거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양친부모와 동거하는 고등학생으로서 결측치를 제거하기 전에 총 412명이었으며, 이중 남학생이 204명(49.5%), 여학생이 208명(50.5%)이었다. 학교계열은 인문계가 211명(51.2%), 실업계가 201명(48.8%)이었으며, 1학년이 120명(29.1%), 2학년이 292명(70.9%)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상류층 45명(11%), 중류층 263명(63.8%), 중하류층 92명(22.3%), 하류층 12명(2.9%)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반응성은 남학생은 10.96점, 여학생 10.50점으로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의 요 구성은 남학생 10.10점, 여학생 평균 9.67점으로 중간보다 낮

게 지각하고 있었다. 학교애착은 남학생 9.51점, 여학생 9.66점으로 학교생활에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고, 학업성취도는 남학생 10.15점, 여학생 10.50점으로 중간 정도였다. 교우관계는 남학생 17.15점, 여학생 17.67점으로 대체로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자기통제는 남학생 14.38점, 여학생 13.69점으로 보통 정도였다.

소외감은 남학생 평균 33.23점, 여학생 평균 33.24점으로 보통 정도였고, 우울은 남학생 평균 18.14점, 여학생 19.26점으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지난 1주일동안 한두번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도 남학생 평균 4.01점에 비해 여학생 4.52점으로 여학생이 높았고, 지난 1년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유서를 쓴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 2 사이에 존재해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검증

● 가설적 모형의 검증 과정

본 연구에 포함된 이론변수는 9개로, 외생변수는 반응적 양육태도(ξ_1), 요구적 양육태도(ξ_2), 학교애착(ξ_3), 학업성취도(ξ_4), 교우관계(ξ_5), 자기통제(ξ_6), 내생변수는 소외감(η_1), 우울(η_2), 자살생각(η_3)이었다. 모형 검증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설명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단계적 접근방법인 2단계 공변량 구조모형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로 학

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 제안된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비교하였다.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χ^2 통계량, χ^2/df , 원소 평균 자승잔차(root mean squared residual),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비표준부합치(non-normed fit index) 등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χ^2 통계량이 크면 모델이 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χ^2 통계량은 표집의 크기가 커지면 모델이 자료에 잘 부합될 때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χ^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Kline(1998)은 $\chi^2/df < 3$ 일 때 모형이 잘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RMSR < .05$ 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90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측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이론변수들간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요인모형, 2요인모형, 4요인모형, 5요인모형과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9요인모형을 비교하였다. 즉 19개의 측정변수가 모두 하나의 이론변수에 부하되는 1요인모형, 내생변수들과 외생변수들을 각각 묶은 2요인모형, 내생변수 전부(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와 가족환경(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학교애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개인적 특성(자기통제)으로 구성된 4요인모형, 가족환경, 학교생활, 개인적 특성, 소외감을 각각 1요인으로 보고, 우울과 자살생각을 묶어 1요인으로 구성한 5요인모형, 부모의 반응적·요구적 양육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애착, 교우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407 : listwise deletion)

Variable	Range	Male(n=201)			Female(n=206)		
		Mean(SD)	Skewness	Kurtosis	Mean(SD)	Skewness	Kurtosis
Responsive parenting	4-16	10.96(2.68)	-.11	-.67	10.50(2.99)	.01	-.77
Demanding parenting	5-20	10.10(3.12)	.60	.01	9.67(2.85)	.82	.37
Academic performance	4-16	10.15(2.66)	-.11	-.45	10.50(2.99)	-.35	-.39
School attachment	4-16	9.51(2.54)	.25	-.57	9.66(2.85)	.13	-.56
Peer relationship	4-20	17.15(3.83)	-.18	.11	17.67(3.66)	-.41	.17
Self control	5-25	14.38(3.46)	.05	-.28	13.69(3.52)	.59	.33
Alienation	16-64	33.23(7.05)	.12	-.43	33.24(7.93)	.12	-.43
Depression	9-36	18.14(3.85)	.28	.01	19.26(4.46)	.29	-.19
Suicidal thought	3-15	4.01(1.35)	.81	-.04	4.52(1.74)	.55	-.17

<Table 2> Fit measures of the measured models

Measured model	χ^2	df	χ^2/df	χ^2 diff	RMSR	GFI	AGFI	NFI	NNFI
1 Factor model	1594.13	152	10.49	1339.38***	.12	.71	.63	.45	.41
2 Factor model	1285.91	151	8.52	1031.16***	.11	.75	.69	.53	.50
4 Factor model	1041.57	146	7.13	786.82***	.10	.79	.72	.61	.59
5 Factor model	952.08	142	6.70	697.33***	.09	.80	.74	.66	.63
9 Factor model	254.75	116	2.20		.04	.94	.90	.90	.91

** p<.01 *** p<.001

관계, 자기통제,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의 9개 요인들로 구성된 9요인모형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9 요인 모형이 1요인모형($\chi^2(36)=1339.38$, $p<.001$), 2요인모형($\chi^2(35)=1031.16$, $p<.001$), 4요인모형($\chi^2(30)=786.82$, $p<.001$), 5요인모형($\chi^2(26)=697.33$, $p<.001$)에 비해 부합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변수들간에 어느 정도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측정모형의 특징수 추정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형내에서 변수들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자료로 요인계수 값을 확인하였다. Lambda X의 요인계수 값은 .48~.97, Lambda Y의 요인계수 값은 .32~.87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관련 이론변수들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SMC)는 하나의 측정변수가 이론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로서, 일종의 신뢰성 계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생변수에 대한 개별 측정변수들의 SMC는 .51~.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외생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SMC는 .34~.80으로 나타나 비교적 좋은 측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모형의 부합도 검증

전체대상의 구조모형은 $\chi^2/df=2.20$ 으로 기준치 3이하이며 GFI=0.94, AGFI=0.90, NFI=0.90, NNFI=0.91로 기준치 .90 이상이고, RMSR=0.04 으로 기준치 0.05 이하였다.

남학생의 구조모형은 $\chi^2/df=1.40$ 으로 기준치 3이하이며 GFI=0.92, NNFI=0.93로 기준치 .90 이상이고 AGFI=0.87, NFI=0.89으로 기준치 .90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RMSR=0.05 이었다. 여학생의 구조모형은 $\chi^2/df=1.89$, GFI=0.90, NNFI=0.90 외에 AGFI=0.88, NFI=0.89로서 기준치 .90에 약간 미치지 못하며, RMSR=0.05이었다. 따라서 남·여학생의 개별적 구조모형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Table 3>.

● 구조모형의 특징수 추정치 및 효과

내생변수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소외감은 남·여학생 모두 학교애착이 낮을수록($\gamma=-.23$, $p<.05$, $\gamma=-.56$, $p<.01$),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gamma=-.22$, $p<.01$, $\gamma=-.21$, $p<.05$), 교우관계가 부

정적일수록($\gamma=-.30$, $p<.01$, $\gamma=-.19$, $p<.01$) 소외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응적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는 소외감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은 양육태도가 요구적일수록($\gamma=.25$, $p<.01$) 소외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요구적 양육태도는 소외감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남학생은 50%, 여학생은 59%였다.

우울은 남·여학생 모두 소외감이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3$, $p<.01$, $\beta=.92$, $p<.01$),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자기통제는 우울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은 학교애착이 낮을수록($\gamma=-.25$, $p<.01$) 우울 정도가 높고, 여학생은 학교애착이 높을수록($\gamma=.34$, $p<.01$)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확인되었다. 우울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남학생 46%, 여학생 62%였다.

자살생각의 경우 남학생은 자기통제가 높을수록($\gamma=.28$, $p<.05$), 소외감이 높을수록($\beta=.32$, $p<.05$), 교우관계가 부정적일수록($\gamma=-.21$, $p<.05$) 자살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여학생은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반면 여학생은 학교애착이 낮을수록($\gamma=-.28$, $p<.05$),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gamma=.29$, $p<.05$)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여학생 모두 우울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beta=.29$, $p<.05$, $\beta=.59$, $p<.0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남학생 31%, 여학생 53%였다<Figur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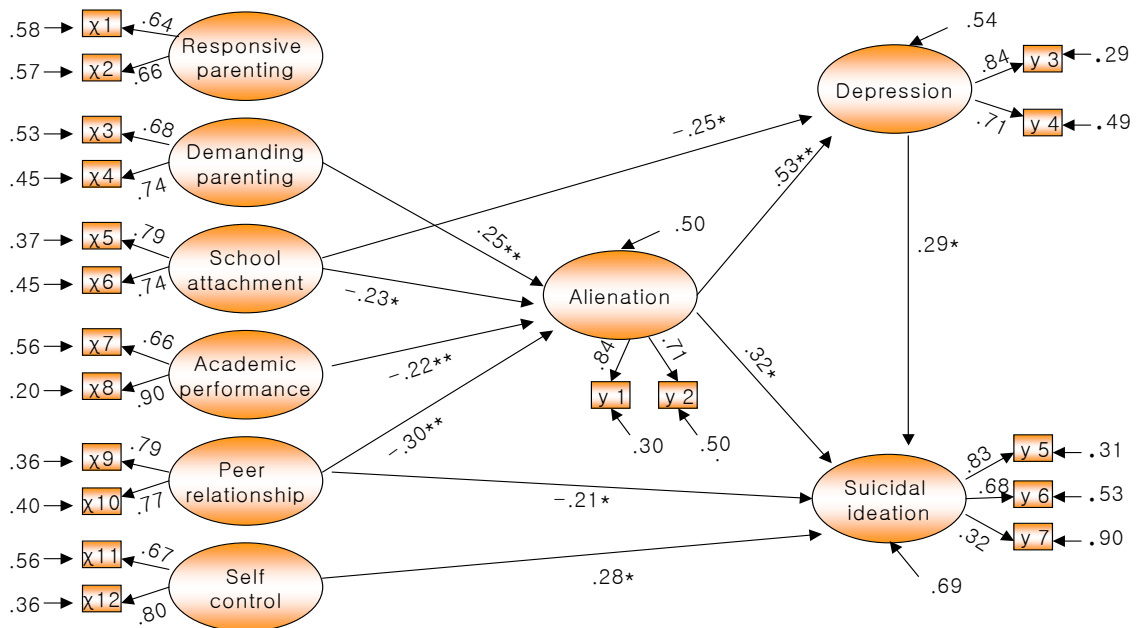
● 모형의 효과 분석

인과모형에서는 각 경로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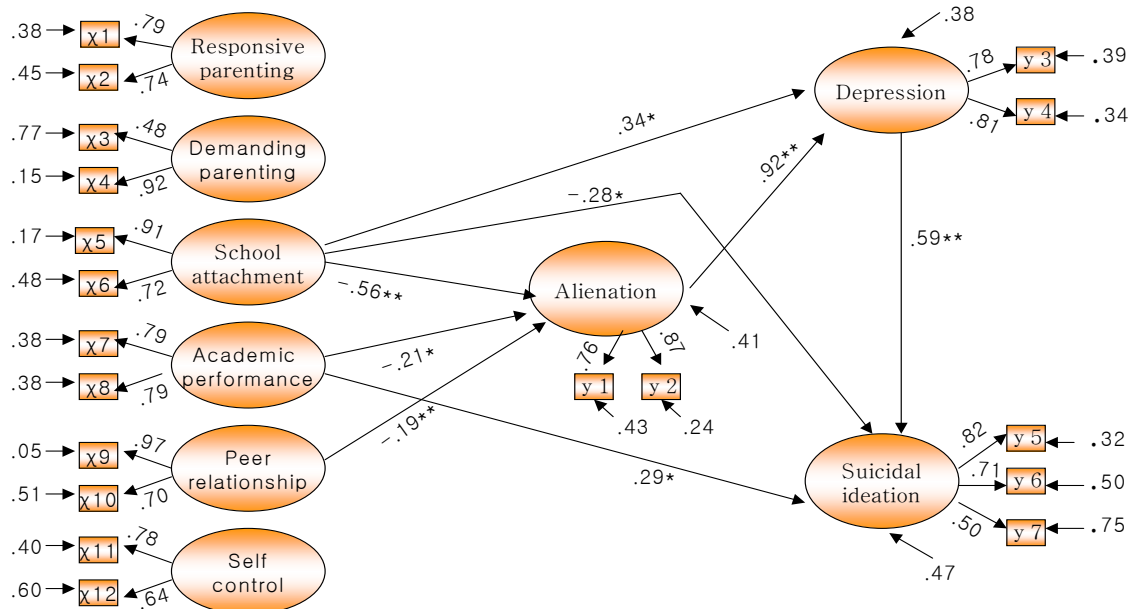
남학생의 경우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외감($\beta=.53$)이었고, 학교애착은 직접효과($\gamma=-.25$)와 간접효과(-.12)가 있어 총효과(-.37)가 향상되었다.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요구적 양육태도(.20)는 소외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2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외감($\beta=.92$)이었고, 학교애착은 직접효과($\gamma=.34$)가 있었다.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Table 3> Fit measures of the hypothesis model

Content Gender	χ^2	df	χ^2/df	RMSR	GFI	AGFI	NFI	NNFI
Total	254.75	116	2.20	.04	.94	.90	.90	.91
Male	162.16	116	1.40	.05	.92	.87	.89	.93
Female	219.68	116	1.89	.05	.90	.88	.89	.90



<Figure 1>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male)



<Figure 2>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female)

않았지만 학업성취도(-.34)와 교우관계(-.15)는 소외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외감($\beta=.48$)으로 직접효과(.32)와 간접효과(.16)가 있었고, 학교애착은 간접효과($\gamma=-.18$)가 커서 총효과(-.35)가 커졌으며, 우울(.29)과 교우관계(-.21)와 자기통제($\gamma=.28$)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외

감으로 직접효과보다는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54)로 인해 총효과(.73)가 커졌다. 다음은 우울($\beta=.59$)의 영향력이 컸고, 학교애착은 직접효과($\gamma=-.28$)에 간접효과(-.21)를 더해 총효과(-.48)가 컸으며, 학업성취도는 직접효과($\gamma=.29$)에 부적방향으로 간접효과(-.24)가 더해져 총효과(.05)가 상쇄되었다. 교우관계는 간접효과($\gamma=-.12$)로 작용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남녀 청소년의 소외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은 학교에 착이었는데 이는 학교활동 참여도와 소외감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들(Sankey & Huon, 1999; Tucker-Ladd, 1990)과 일치한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부족한 학업적, 사회적 기술 및 자원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Sankey & Huon, 1999), 학교에착은 학생 소외감에 있어서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우관계는 친구지나 친구 만족도와 소외감의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들(Kim, 2000; Lee, 2001)과 마찬가지로 소외감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가족외적인 인간관계를 많이 맺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친구관계이므로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소외감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도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성적이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의 사회분위기에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현재 학업적 성취와 미래 직업활동간의 단절을 인식하게 되어 무력감이나 무의미와 같은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업실패로 가족이나 교사로부터 질책과 비판을 받게 되면 사회적 고립감이 가중되고, 수업이나 교실활동 및 학교규범에 반항하고 이탈하는 규범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Mau, 1992).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소외감 발생에 중요한 영향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 보건간호사가 학교에착을 증진시키고,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및 또래 지지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학생 소외감을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소외감은 청소년 우울의 강력한 예측인자로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울과 소외감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들(Kim, 1994; Abdallah,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 모형에서 소외감은 심리사회적 변수들과 우울간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생변수인 학교에착,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요구적 양육태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소외감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소외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Sankey와 Huon(1999)은 청소년 비행 예측

모형에서 소외감의 매개역할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하여 소외감의 매개 효과와 우울에 미치는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우울이었고, 이는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우울을 보고한 연구들(Birmaher et al., 1996; Hollis, 1996; Roberts et al., 1998; Shaffer et al.,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므로 우울증을 선별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확인하고 중재하는 효과적인 예방전략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소외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효과와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더하여 강력한 총효과를 보였다. 이는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압력이나 긴장과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이 자살의 주된 요소라고 밝힌 사회학적 연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청소년기 우울과 자살 현상에서 성차의 원인으로, 첫째는 단지 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조작된 결과라는 허위론과, 둘째 여성의 사회적 조건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이라는 성역할론과, 셋째 여성의 생물학적인 조건의 특이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있다(Hong et al., 1998).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문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친밀성과 수용성 등 관계주의적 규범과 역할을 강조하여 온 경향이 강하다. 현대 여성들은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요구와 자주성, 개인적 목표성취 등 현대적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소지가 많으며 이는 관계주의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강하게 추구하는 성취지향적 여성들에게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Han & Lee, 1995). 본 연구에서도 학교에착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여학생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착이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남학생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학교생활에 애착정도가 높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성취지향적인 여학생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중심적 사회이므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통제력 상실을 경험(Hong et al., 2001)할 때 우울과 자살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성취를 곧 가문의 성취로 간주하고,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더욱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요구성을 높게 지각하는 남학생일수록 소외감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여학생은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성역할과 학력위주의 교육 현실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

어 통제유형의 연구(Jeong & Choi, 1997)에서도 어머니가 남아에게 명령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남아는 여아에 비해 부모를 비온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의 요구성과 통제를 과도하게 지각하여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통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차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여성은 성격이 보다 “표현적”이고, 남성은 보다 “도구적”이므로 여성은 감정표현이 인정되지만, 남성에게는 감정을 통제하도록 기대한다. 따라서 감정표현이 지연되는 동안 치명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선택하여 평소에 잘 기능하던 청소년이 자살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는 자아통제력이 높은 남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소외감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은 소외감이 우울을 매개로 삼아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입원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요인을 사정한 Kopper 등(1998)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자살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소외감이 강조되었고, 반면 여자청소년에게는 우울이 더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남학생은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여학생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내용이나 기법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남녀 성차가 확인되었으므로 위험군을 파악하고,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에 따른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가족환경, 학교생활 및 자기통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소외감은 우울과 자살생각 유발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다체계적 관점에서 소외감의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남녀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인 가정환경, 학교생활,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자기통제를 외생변수로,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을 내생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성별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에서 구조모형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고, 성차가 확인되었다. 가설적 모형에서 전체 변수들의 설명력은 남학생의 경우 소외감 50%, 우울 46%, 자살생각 31%였고, 여학생의 경우 소외감 59%, 우울 62%, 자살생각 53%였다.

소외감은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교우관계로부터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우울과 자살생각에 유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다체계적 관점에서 소외감의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남학생은 요구적 양육태도에서 소외감, 자기통제에서 자살생각, 소외감에서 자살생각의 경로에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은 학교애착에서 우울, 학업성취도에서 자살생각의 경로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에 따른 다른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의 소외감 측정도구를 반복 연구하여 청소년을 위한 표준화된 소외감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우울과 자살생각·시도·완성의 연속적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향적 종단적 연구를 시행할 것과 학생 청소년 외에 비행 청소년이나 학교중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모형을 확대시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bdallah, T.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alestinian student alienation scale. *Adolescence*, 32(126), 366-371.
- Birmaher, B., Ryan, N. D., Williamson, D. E., Brent, D. A., Kaufman J., Dahl, R. E., Perel, J., & Nelson, B. (1996).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I.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5(11), 1427-1439.
- Borowsky, I. W., Ireland, M., & Resnick, M. D. (2001). Adolescent suicide attempts: Risks and protectors. *Pediatrics*, 107(3), 485-493.
- Cho, S. J., Jeon, H. J., Kim, M. J., Kim, J. K., Kim, S. U., Lyoo, I. K., & Cho, M. J. (200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adolescents in a urban area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4), 627-639.
- Chun, Y. J. (2001).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J Korean Home Econ Assoc*, 39(1), 151-167.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 S. H., & Lee, H. M. (1996).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depressive trait in young adolescents. *Korean J Child Adol Psychiatry*, 7(2), 167-178.
- Han, S. Y., & Lee, H. P.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lienation and individualistic/collectiveistic tendency. *Korean J Psychol: Social Issues*, 2(1), 113-129.
- Hollis, C. (1996).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5(5), 622-630.
- Hong, S. J., Kim, M. J., Kim, A. Y., Kim, H. H., Park, Y. S., Park, Y. S., Bang, H. J., Lee, S. J., Lee, O. H., Lee, J. Y., Jeon, Y. H., Jo, S. H., & Jo, H. J. (2001). *Psychology of women*. Seoul: Kyoyookbook.
- Jackson, C., Henriksen, L., & Foshee, V. A. (1998). The authoritative parenting index: Predicting health risk behavi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Health Educ Behav*, 25(3), 319-337.
- Jeong, H. H., & Choi, K. S. (1997).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J Korean Home Econ Assoc*, 35(5), 163-175.
- Kang, S. J. (2000). *A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ang, W.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mother's values, father/mother-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mother's over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alie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0). *A study on alien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environmental variables and family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Kim, S. M. (1994).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physical,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King, R. A., Schwab-Stone, M., Flisher, A. J., Greenwald, S., Kramer, R. A., Goodman, S. H., Lahey, B. B., Shaffer, D., & Gould, M. S. (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0(7), 837-846.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pper, B. A., Osman, A., Osman, J. R., & Hoffman, J. (1998). Clinical utility of the MMPI-A content scale and Harris-Lingoes subscales in the assessment of suicidal risk factors in psychiatric adolescents. *J Clin Psychol*, 54(2), 191-200.
- Lee, E.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social supports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0(4), 464-475.
- Mau, R. Y. (1992). The validity and devolution a concept: student alienation. *Adolescence*, 27(107), 731-742.
- Nam, H. M. (1999).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oh, S., Avison, W., & Kasper, V. (1992). Depression symptom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 Assess*, 4, 84-91.
- Nutbeam, D., Smith, C., Moore, L., & Bauman, A. (1993). Warning! schools can damage your health: Alienation from school and its impact on health behavior. *J Paediatr Child Health*, 29(1), 25-30.
- Park, H. 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oberts, R. E., Roberts, C. R., & Chen, Y. R. (1998). Suicidal thinking among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attempted suicid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7(12), 1294-1300.
- Sankey, M., & Huon, G. F. (1999). Investigating the role of alienation in a multicomponent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J Adolesc*, 22, 95-107.
- Shaffer, D., Gould, M., Fisher, P., Trautman, M. P., Moreau, D., Kleinman, M., & Flory, M. (1996).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rch Gen Psychiatry*, 53, 339-348.
- Tucker-Ladd, P. R. (1990). Alienated adolescents: How can schools help?. *Clearing House*, Nov/Dec, 64(2), 112-114.
- Yoo, Y. H. (1994).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school adaptation,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Lee, Eunsook¹⁾

1)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struct a structural model explaining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204 male and 208 female students selected randomly in high schools in K city.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alienation, and was indirectly affected through alienation by schoo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Suicidal thoughts were greatly affected by depression, and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alienation. It was confirmed that alienation turned out to be a important mediating variable, while it had a effect significant 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ffecting factors among male and female students. **Conclusion:**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In addition,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 plans, including parent education and role training programs, fostering of humanistic and achievement-focused educational environment, peer support programs, and individual counselling,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lessen a feeling of alienation from family and school.

Key words : Adolescent, Alienation, Depression, Suicidal though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sook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285, Okgwali, Okgwamyun, Goksungun, Chonnam, Korea

Tel: 82-61-360-5335 Fax: 83-61-360-5331 E-mail: eslee@chunnam-c.ac.kr